



## KOGHA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여동 이사장입니다.

2017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연임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지 어느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조합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한 정치 상황과 사드, 북핵 문제 등 주변국의 여러가지 크고 작은 마찰로 회원사 여러분의 사업활동에 어느 해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내외 환경에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불안요소 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 협동조합은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계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3월 개최하는 2018 KIMES 국제의료기기 및 병원설비전시회에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KOGHA Zone"을 만들어 유통채널 확대와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의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조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이지만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8년 戊戌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 12. 26

KOGHA 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윤여동 배상

